

성인 남성의 신발 착용실태 및 만족도

최 중 명*(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교수)

권 수 애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교수)

김 정 속 (서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본 연구는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신발 착용실태 및 착용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쾌적한 신발 제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작성된 설문지를 예비조사를 거쳐 보완한 다음 2002년 11월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성인남성 148명이었다. 조사된 자료는 문항별로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39.2%, 대졸이상은 60.8%이었고, 전문직 29.1%, 사무관리직 22.3%, 생산판매직 6.8%이었으며, 75.3%는 건강한 편, 23.3%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발 크기는 260mm~270mm가 52.7%로 나타났고(범위 225~290mm), 통근수단은 자가용(58.3%), 도보(22.2%), 대중교통(17.4%)의 순이고, 총 통근시간은 평균 21분(도보시간은 평균 11분)이었다. 구두와 운동화를 각각 평균 2켤레씩 소지하고 있었으며, 소지한 구두의 소재는 천연가죽이 63.4%, 합성피혁은 34.5%이었고 검정색이 84.5%로 압도적이었다. 착용하는 신발은 봄/가을과 겨울은 구두, 운동화의 순서이었으나, 여름철은 구두, 샌들의 순서로 나타나 계절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구두는 매일 착용하는 경우가 35.3%이었고 일주일에 4~5회 착용하는 경우는 32.4%로 나타나 구두 착용률이 높아 남자 대학생과 차이를 보였다. 구두형태에 대해서는 끈이 달린 클래식한 모양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키 높이 구두를 착용하는 경우는 불과 6.8%정도이었다. 구두 착용시 디자인, 색상, 치수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가격, 내구성, 재질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고 하였다. 구두착용시 발이 아프고 발바닥이 후끈거리며 발이 붓고 물집이 생겼다는 경우가 많았으며, 발바닥, 발가락, 발뒤꿈치의 순으로 불편을 느끼고, 다리부분 전체 피로와 구두 속의 불쾌감 등을 경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편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인 56.9%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으며, 깔개를 넣거나(25.0%), 폭을 넓히는(6.9%) 등의 소극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반정도는 장기간 구두착용으로 못/티눈이 발생하거나 발가락과 발톱의 변형된 경험이 있다고 하였는데, 원인으로는 구두의 폭, 굽 높이, 형태, 재질의 순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인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구두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구두업체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내구성이 좋고 착용시 쾌적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 개발과 재질을 선정하여 적절한 가격대의 구두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요구된다.